

민족문화경전 이야기 총서

国家“十二五”少数民族语言文字出版规划项目

民族文字出版专项资金资助项目

먼바족

门巴族

Ménbāzú

편자 장보현
역자 문숙동



료녕민족출판사

외국어교육원 연구출판사

© 文淑东 2014

©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有限责任公司 2014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门巴族：朝鲜文 / 张保贤编；文淑东译. —沈阳：
辽宁民族出版社，2014. 9

(民族文化经典故事丛书 / 王泉根主编)

ISBN 978-7-5497-0859-8

I. ①门… II. ①张… ②文… III. ①门巴族—民
族文化—中国—少儿读物—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K286.7-49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14) 第 216017 号

门巴族

MENBAZU

出版发行者：辽宁民族出版社

地 址：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 25 号 邮编：110003

印 刷 者：沈阳航空发动机研究所印刷厂

幅面尺寸：180mm×240mm

印 张：5

字 数：40 千字

印 数：1-1500

出版时间：2014 年 9 月第 1 版

印刷时间：2014 年 9 月第 1 次印刷

责任编辑：张学林

封面设计：杜 江

责任校对：李 京

标准书号：ISBN 978-7-5497-0859-8

定 价：18.00 元

法律顾问：陈 光

版权专有 侵权必究

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出版社联系调换

网址：www.lnmzcs.com

淘宝网店：http://lnmz2013.taobao.com

举报电话：024-23284336

邮购电话：024-23284335

联系电话：024-23284340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편집위원회

주편

왕천근

부주편

장해양

학상근

편집위원회성원(가나다 순)

곽우파

두얼버타이(몽골족)

리소빙

푸츠다링(이족)

샌미시누(위글족)

석국용

장금수(투자족)

전산천

정 아(회족)

황 연(거로족)

양 화

웅덕정(푸미족)

왕 리(만족)

왕 봉(바이족)

왕효징

위 평(짱족)

왕해연(창족)

심고전문가(가나다 순)

김여빈(회족)

송 전(몽골족)

수 청(몽골족)

장약박(몽골족)

왕철지(몽골족)

서 언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요

56개 형제자매는 한가족일세...

중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노래를 익히 알고있을것이다. 중국사람이라면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이 년장자이든 년소자이든 이 아름다운 선률과 열렬하고 경쾌한 노래에 감동될것이며 혈관속에서 사뭇치는 중국심(中國心)을 그 누구도 개변시킬수 없을것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하나의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새중국이 건립된후 식별을 거치고 중앙정부의 확인을 받은 민족은 56개이다. 한족을 제외한 55개 민족은 인구가 한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에 습관적으로 “소수민족”이라고 일컬어왔다. 이 55개 소수민족은 몽골족, 회족, 장족, 위글족, 묘족, 이족, 좡족, 부이족, 조선족, 만족, 좡족, 요족, 바이족, 투쟈족, 하니족, 까자흐족, 따이족, 리족, 리수족, 와족, 쑤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둥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기즈족, 투족, 다우르족, 무로족, 창족, 부랑족, 싸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푸미족, 따지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로씨야족, 어원크족, 더양족, 보안족, 위구족, 징족, 따따르족, 두룽족, 오로첸족, 허저족, 먼바족, 로바족, 지노족이다.

중국 각 민족의 분포특점은 대잡거(大雜居), 소집거(小聚居)에 서로 섞여서 거주하는것이다. 한족지구에 소수민족이 집거해있기도 하고 소수민족지구에 한족이 섞여서 살기도 한다. 이런 분포구조는 장기적인 력사발전과정에서 여러 민족이 서로 교체하고 류동하면서 형성되였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분포가 광범위한바전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마다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있고 절대 대부분의 현급행정구에는 두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고있다. 소수민족은 주로 내몽골, 신강, 녕하, 광서, 서장, 운남, 귀주, 청해, 사천, 감숙, 료녕, 길림, 호남, 호북, 해남, 대만 등 성과 자치주에 분포되어있다. 중국에서 민족성분이 제일 많은 성은 운남성

으로서 25개 소수민족이 세세대대로 거주해왔다.

세계의 동방에 우뚝 선 중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명을 갖고있다.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중국의 56개 민족은 정치, 경제, 지리환경, 종교신앙, 풍속습관이 서로 다름으로 하여 동종동원동근동맥동습동연(同种同源同根同脉同习同缘)의 공성을 갖고있는 한편 각 민족지간의 문화적차이도 갖고있다. 이로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중화민족대가정문화를 형성하였다. 내몽골대초원 몽골족의 “나다무(那达慕)” 경마에서 운남 시쌍반나 타이족산채의 발수절(泼水节)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지방에서 전해내려온 신비한 고대 장족의 서사시 《거싸르왕전》에서 리강 량안 류삼저(刘三姐) 고향의 짱족대창(对歌)에 이르기까지, 장백산아래 해란강반 조선족의 장고춤에서 청해호반에 울려퍼지는 투족의 “꽃”노래에 이르기까지, 푸름에 도취하게 하는 신강 툄판 포도곶짜기에서 너울너울 춤추는 위글족의 무용에서 꿈같고 그림같은 대리바이족자치주 창산이해에서 똥똥거리는 삼현가락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런 오색찬란하고 풍격이 각이한 다민족문화가 중국문화의 장려한 화폭을 공동히 구성하였다.

중국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널리 알리고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기상만천한 중국 56개 민족의 역사문화를 세세대대 전해내려가며 중화민족의 정신적고향을 구축하기 위하여 외국어교학과연구출판사에서는 민족문화에 관련된 학자와 작가들을 특별초청하여 광대한 소년아동을 위한 이 “561문화과제—민족문화경전이야기 총서”를 편찬하였다.

이 총서는 전문 신세기 소년아동들을 위해 집필한 맞춤형도서라고 할수 있다. 한개 민족에 한책씩 모두 56권이다. 총서는 56개 민족의 역사문화발전을 주선으로 하면서 각 민족의 다채로운 이야기예술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키고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생동하고 형상적이므로 사상성, 이야기성, 지식성, 가독성을 한몸에 지니고있다.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다. 56권의 좋은 책을 모두어 한마디로 엮어본다. 우리 중화를 사랑하자. 좋은 책을 여럿이 읽자, 책을 읽으면 마음이 자란다.

“561문화과제” 편찬위원회

목 록

제1장 서장남부 산간지대의 신비한 민족——면바족

- 면바족의 기원에 관한 전설 (1) /9
- 면바족의 기원에 관한 전설 (2) /15
- 왕자와 상대신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19
- 가룡왕뿌와 쥐와쌍무에 관한 이야기 /21
- 극락의 가경을 찾아——면바족이 동쪽으로 이주한 이야기 /29
- 런칭병사원건설에 관한 전설 /33

제2장 면바족의 집거지

- 냥장취강에 관한 이야기 /39
- 취지쌍무와 등둔 /41
- 무엇때문에 냥장취의 사람을 큰형이라고 부르는가 /43
- 얄롱장보강은 왜서 급카브를 도는가 /45

제3장 면바족의 생산방식

- “자바얼”벼종자의 유래 /49
- 면바족목축업의 기원에 관한 전설 (1) /51
- 면바족 목축업의 기원에 관한 전설 (2) /57

제4장 먼바족의 생활습관

러뿌의 여성들이 송아지가죽을 걸치는데 관한 전설 /59

용마루신에 관한 전설 /61

외삼촌이 결혼식에서 소란을 피우다 /63

넝쿨그물다리의 유래 /65

제5장 먼바족의 문학과 예술

피슈가무의 아들이 기술을 배운 이야기 /67

박쥐에 관한 이야기 /69

보살이 쌀을 훔치다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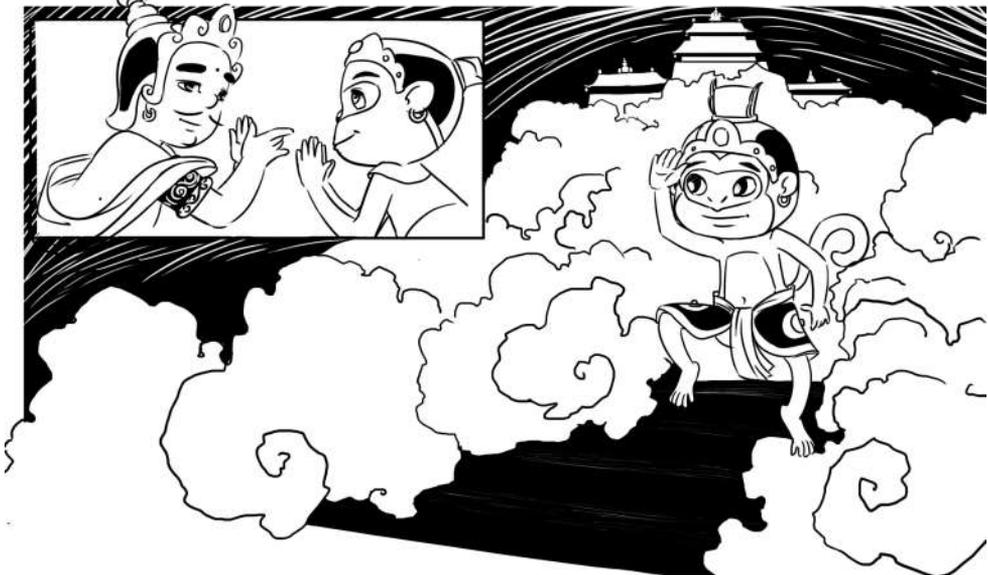
창양자취와 먼바족련가 /75

제6장 먼바족의 무용

바창의 유래 /77

먼바무에 관한 전설 /79

참고문헌



제1장 서장남부 산간지대의 신비한 민족 ——먼바족

“먼바”란 원래 먼바족에 대한 장족의 호칭이었으나 지금은 이미 먼바족의 자칭으로 되었으며 “먼위(门隅)에 살고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각지의 먼바족은 거주지역이 다르고 역사적으로 여러차례의 이주를 거쳤으므로 그외에도 “주바(竹巴)” “러버(勒波)” “쉐정(学增)” 등 여러가지 호칭이 있다. 해방후 전문가소조의 조사를 거치고 본 민족 군중들의 의사를 들어본후 먼바족이라고 족칭을 확정하였다. 1964년,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먼바족은 단일민족의 항렬에 들어 중국 민족대가정의 일원으로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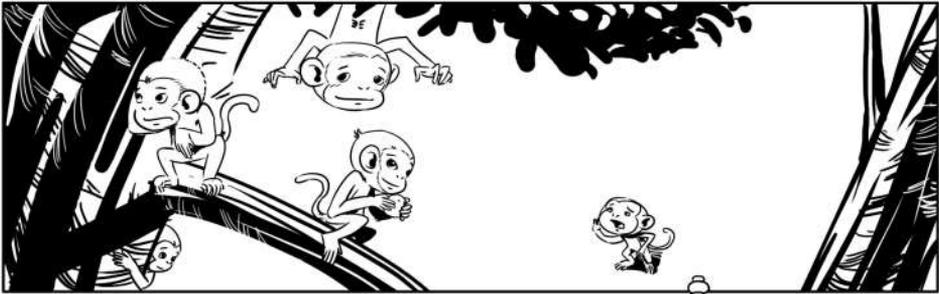
먼바족은 주로 서장자치구의 메독현(墨脱县), 초나그현(错那县), 닝치현(林芝县), 자위현(察隅县) 등지에 분포되어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역사가 유구한 민족 중의 하나이다. 2000년의 전국 인구조사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 먼바족의 인구는 근 9,000명에 달한다.

먼바족의 선조는 먼위지역의 원시토착군체와 주변지역의 원시인류군체가 서서히 융합되면서 형성되었다. 그들은 아주 일찍부터 히말라야(喜马拉雅)산악지대에서 후손을 번성시키며 장족, 로바족(珞巴族) 등 민족과 더불어 조국의 서남변경지대에서 살아왔다. 먼바족의 기원에 관해 가장 대표적인것은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한” 신화이야기이다.

먼바족의 기원에 관한 전설 (1)

아주 먼 옛날, 땅덩어리우에는 인적 하나 없이 텅텅 비어있었고 하늘에도 해와 달이 없었다. 하늘과 땅 사이는 그야말로 혼돈상태여서 낮과 밤을 가릴수 없었다. 하늘우에는 천궁이었는데 어느날 천궁의 천신(天神)이 아래를 굽어보니 하계는 마치 자욱히 피어오르는 안개바다처럼 끝없이 펼쳐져 대지를 완전히 뒤덮고있었다.

천신은 하계가 이렇듯 황폐하고 적막하니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시신인 원숭이신 즈우 장쭈선바를 하계로 내려보내 인간세상을 만들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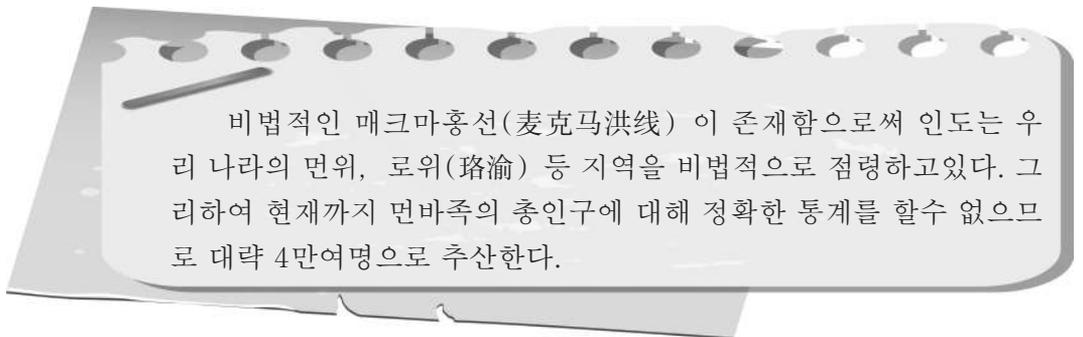


원숭이신 장쑤선바는 천신의 명을 받들고 천궁을 떠나 들끓는 안개바다를 헤치고 광활한 대지에 내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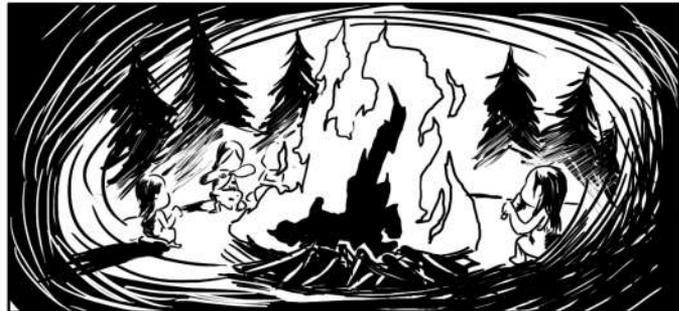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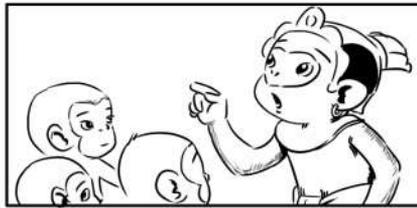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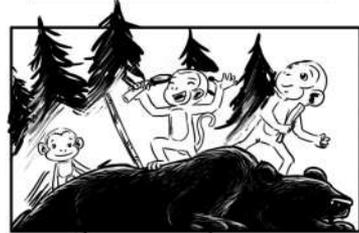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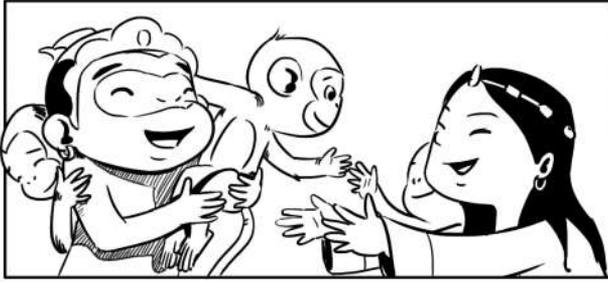
장쑤선바가 천궁을 떠난지 얼마 되지 않아 천신은 또 자선무라는 녀신을 하계로 파견하였다. 자선무는 재주가 비상하여 여러가지 동물의 모습으로 변할줄 알았다. 자선무는 대지에 와서 맨먼저 수호랑이 한마리를 만났다. 그녀는 호랑이로 변하여 수호랑이와 혼인을 하려 했으나 수호랑이는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어 수사자를 만난 자선무는 또 사자로 변하여 수사자와 결혼하려 하였으나 수사자 역시 그녀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뒤이어 곰을 만난 자선무는 또 곰으로 변하여 곰과 결혼하려 하였으나 곰 역시 그녀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한무리의 원숭이를 만난 자선무는 원숭이로 변하여 원숭이무리속에 끼여들었다. 하지만 자선무가 변한 이 원숭이는 생김새가 너무 추하여 원숭이들은 모두 그를 멀리하였다. 자선무는 원숭이들이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고 랭대하는 그 원인을 알수 없었다.

어느날 자선무는 강변에서 놀고있었다. 그녀는 거울처럼 잔잔한 물속에 비친 자기의 추한 물골을 문득 보게 되었다. 그녀는 제 자신이 혐오스러웠고 그제서야 모든것을 깨닫게 되었다. 자선무는 반나절 고민하다가 몸을 한번 흔들더니 용모가 아주 빼어난 원숭이로 변했다. 그녀는 또다시 원숭이들과 가까이하려 했으나 원숭이들은 여전히 그녀를 쌀쌀하게 대했다. 자선무는 할수 없이 천궁으로 되돌아가고말았다.

얼마후 맨먼저 하계로 내려갔던 장쑤선바도 천궁으로 돌아왔다. 천신은 자선무와 장쑤선바를 불러 그들에게 “너희들은 다시 하계로 내려가야겠다. 이번에 가면 천궁으로 돌아오지 못하거늘 하계에서 부부로 되어 아들 딸을 낳아기르며 인간세상을 만들어야 하느니라!” 하고 명했다.



비법적인 매크마홍선(麦克马洪线)이 존재함으로써 인도는 우리나라의 먼위, 로위(珞渝) 등 지역을 비법적으로 점령하고있다. 그리하여 현재까지 먼바족의 총인구에 대해 정확한 통계를 할수 없으므로 대략 4만여명으로 추산한다.



자선무와 장추선바는 천신의 명에 따라 하계로 다시 내려와서 부부로 되었다. 오래지 않아 두 부부는 아들 딸을 여럿이 낳아 길렀는데 그들은 비록 온몸에 털이 나있었고 꼬리도 있었지만 두 다리로 걸을줄 알았다. 그러나 자식들은 여전히 원숭이모양이어서 수림속의 동물들은 그 누구도 그들과 혼인을 하려 하지 않았다. 할수 없어 자선무와 장추선바는 자식들끼리 결혼하도록 하였다. 자식들이 낳은 아이들 역시 원숭이모양이고 두 다리로 걷고 바위나 나무우에 올라가 먹거리를 찾을줄은 알았지만 사냥할줄도 모르고 농사를 지을줄도 몰랐다. 인간세상은 여전히 만들어지지 못했다.

자선무와 장추선바는 어찌할바를 몰라 또다시 천궁으로 올라가 천신의 지시를 청구했다. 이번에 천신은 그들에게 닭발이삭조, 쌀보리, 옥수수 등 곡식 종자를 하사하면서 “이 종자들을 땅에 뿌리면 너희들이 필요한것들을 얻을수 있느니라.” 하고 말했다. 이어 천신은 그들에게 도구를 만들고 파종하고 밭을 가는 등 방법까지 가르쳐주었다.

자선무와 장추선바는 재차 하계로 돌아와 천신의 말대로 자식들에게 농사짓는 방법을 배워주었다. 이때부터 땅우에는 여러가지 곡식이 있게 되었다. 그들은 또 인간세상 최초의 돌도끼를 만들어내어 그것으로 메돼지, 곰, 고라니, 산양 등 많은 짐승을 잡았다.

어느날 자선무가 갑자기 사람말을 하면서 인간세상의 첫마디 말을 떼었다. 원숭이들은 모두 신기해하며 자선무에게 말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하여 말할줄 아는 원숭이가 점점 더 많아졌고 점점 더 총명해졌으며 그들의 용모도 갈수록 보기 좋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을 리용할줄 몰라 날음식과 차거운 음식을 먹었다.

자선무와 장추선바는 천신의 도움을 받기로 상의하고 또다시 천궁으로 돌아와 “우리는 이미 짐승을 잡고 농사를 짓고 사람말을 하는것 등을 배웠는데 우리 몸에는 여전히 긴 털이 덮여있고 긴 꼬리까지 나있으니 어찌면 좋겠어요?” 하고 천신에게 물었다. 천신은 별 말을 하지 않고 불씨 한줌만 그들에게 하사하였다.

자선무와 장추선바는 천신이 하사한 불씨를 들고 하계로 내려왔다. 불이 있는 후로 그들은 익은 음식을 먹게 되었고 익은 음식을 좋아하는 원숭이들은 몸에 난 털들이 점차 빠지고 꼬리도 점점 짧아지다가 후에는 사람으로 변했다.

인간세상은 드디어 창조되었다.



먼바족들속에는 인류의 기원에 관하여 또 다른 하나의 전설이 있다.

먼바족의 기원에 관한 전설 (2)

옛날 옛적에 알롱장부강(雅鲁藏布江)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유유히 흘러내렸다. 강물은 남가바와봉(南迦巴瓦峰) 산밑에 이르러 막혀버렸다. 강물이 넘쳐나 주변의 대지를 모조리 삼켰고 나중에는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오직 남가바와봉만이 우뚝 서있었다.

그때 공보지역(工布地区, 옛지역의 이름, 서장자치구의 동쪽에 있음)의 한 가정에는 삼형제가 살고있었는데 그들은 수야크(公牦牛) 세마리를 길렀다. 큰물이 공보지역까지 올라오자 삼형제는 급한 순간에 좋은 수가 떠올라 수야크 세마리를 모두 잡아 소가족으로 작은 배 한척을 만들었다. 삼형제는 작은 배를 타고 물우에 떠들었으나 배는 작고 물살은 세여 소가족배는 곧 뒤집어지려고 하였다. 이때 큰형과 둘째형은 어린 동생을 살리려고 선후로 물속에 뛰어들어 모두 숨지고 오로지 어린 동생만이 소가족배에 남았다. 작은 배는 물우에 둥둥 떠서 줄곧 남가바와봉 산밑까지 떠내려갔다.

어린 동생은 소가족배에서 내려 산정상으로 올라갔다. 산봉우리우에서 그는 향불냄새를 맡고 그 냄새를 따라 땅속을 파고 또 봤더니 갑자기 동굴 하나가 나타났다. 동굴속에는 한 신선이 눈을 감고 도를 닦고있었다. 신선은 “넌 누구냐? 왜 여기로 왔느냐?”고 물었다.

어린 동생은 “큰물이 나서 모조리 물에 잠겨 세상에는 이미 사람이 없어요. 저는 형들이 만들어준 소가족배를 타고 여기까지 떠내려오다가 향불냄새를 맡고 당신을 만나게 되었어요.”라고 대답했다.

신선은 “그럼 됐다, 넌 여기에 묵거라.”라고 했다.

이튿날 이른아침, 신선은 어린 동생에게 “넌 산밑에 가서 기다리다가 수면에 괴물 한마리가 나타나면 꼭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 동생이 산기슭의 물가에 앉아 한참 기다리니 멀리서 엄청 큰 사자 한마리가 떠내려오는것이 보였다. 사자의 거대한 머리통은 하늘 가까이에 다달았고 날카로운 송곳이를 드러내고있었으며 육중한 몸집은 수면 전부를 뒤덮고있었다. 어린 동생은 너무도 두려워서 이 사자를 감히 붙잡지 못하였다. 어린 동생이 동굴로 돌아오자 신선은 “넌 그 괴물을 붙잡지 못했구나, 래일 또 가야겠다.”라고 했다.



이튿날 어린 동생은 또 신기슭에 왔다. 잠간 있으니 저멀리 호랑이 한마리가 떠내려오는것이 보였는데 호랑이의 두려운 모습을 본 어린 동생은 이번에도 감히 붙잡지 못했다. 신선은 어린 동생이 이번에도 괴물을 붙잡지 못하자 “래일은 마지막 하나의 괴물이 나타날것이다. 이번에도 네가 그 괴물을 붙잡지 못하면 이 동굴로 돌아오지 말거라.” 하고 말했다. 이튿날 어린 동생은 세번째로 산기슭에 왔다. 한참 지나니 매우 큰 뱀 한마리가 물속에서 떠오르더니 수면 전부를 뒤덮었다. 어린 동생은 죽든살든 목숨을 내걸고라도 이 뱀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괴물을 향해 던졌다. 그러자 뱀은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신선은 그제서야 어린 동생에게 “래일부터는 네가 동굴속에서 도를 닦아도 되겠구나.”라고 했다. 그후 어린 동생은 신선을 따라 동굴속에서 도를 닦았다.

몇년이 지나 드디어 큰물이 다 빠지고 대지가 다시 제 모습을 드러냈다. 알룽장부강은 남가바와봉 산밑으로 해서 남쪽으로 흘러갔다. 어느날 자선무(라찰녀, 전설속의 녀악마)가 한창 도를 닦고있는 동생앞에 나타나 그에게 “저와 결혼해주세요.”라고 말했다. 동생은 “신선의 동의가 없으면 난 당신과 결혼할수 없소.”라고 했다. 자선무는 “당신이 저와 결혼을 해주지 않으면 저는 찬버위(염라대왕)를 찾아갈거예요. 그에게는 아홉형제가 있는데 그들의 안해가 되어 온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거예요.”라고 했다. 동생은 그래도 승낙하지 않고 신선을 찾아가 “저는 자선무와 혼인을 할수 없어요. 그녀는 귀신인데다가 당신의 허락도 받지 못했으니까요.”라고 말했다. 신선은 “네가 만약 그녀와 결혼하지 않으면 그녀는 찬버위를 찾아갈테고 그러면 온 세상이 지옥이 될것이다. 그녀와 결혼하거라.” 하고 말했다.

그래서 동생은 자선무와 결혼하고 많은 자식들을 낳았는데 아이들은 온몸에 털이 나있었고 먹을것, 입을것도 없어 또 신선을 찾아갔다. 신선은 찾아온 동생에게 작은 칼 하나를 주면서 와마(窩麻)의 연한 잎을 파서 물을 끓여 아이들을 씻어주라 하고 메밀종자도 많이 주었다. 그때부터 서장에는 메밀이 있게 되었다. 동생은 신선의 지시대로 와마잎을 끓인 물로 아이들을 목욕시켜 그들 몸의 털을 없앴다. 그런데 아이들이 물이 뜨겁다고 머리를 굴속에 처박는바람에 머리칼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또 아이들이 두팔을 꼭 껴안고있을탓에 겨드랑이털도 남게 되었다. 그후로 세상에는 사람이 있게 되었고 사람은 오늘날의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